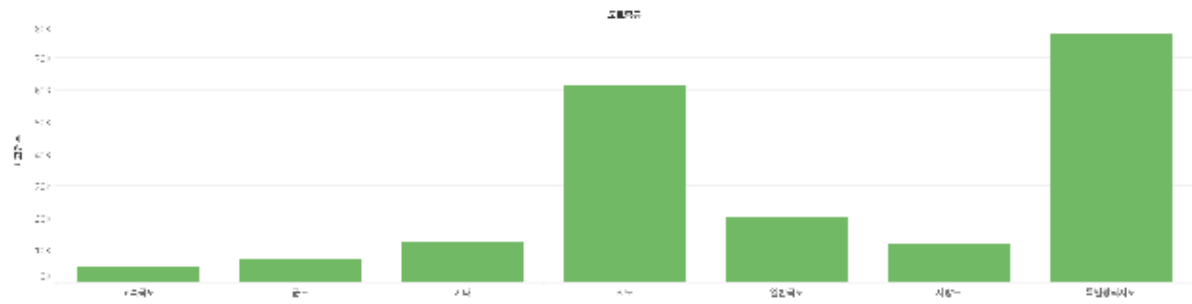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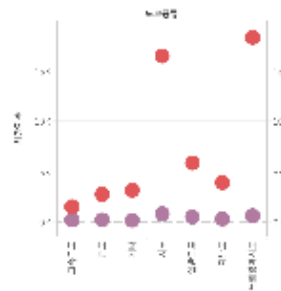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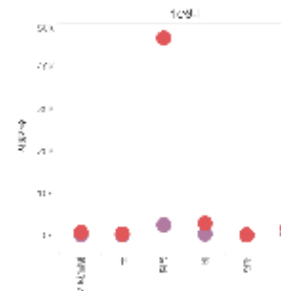
◀도로종류별 사고건수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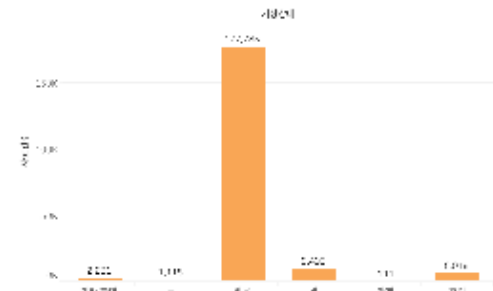
◀도로종류별 사망자수, 중상자수▶



◀기상상태별 사망자수, 중상자수▶



◀기상 상태별 사고건수▶



위 데이터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데이터이다. 간단하게 기상상태별 사고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bar 그래프로 표현했다. 그 결과, '맑음'일 때 사고 건수가 177,785인 것으로 보아 '눈이나 비가 올 때 교통사고가 더 자주 날 것이다.'라는 가정과는 다르게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음 도로상태별로 사고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bar 그래프로 표현해보았다. 그 결과 특별광역시도 77,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시도에서 61,8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. 인구가 가장 붐비는 특별광역시도와 시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인구 밀도와 사고 발생률 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. 인구가 많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.

도로 종류별, 기상 상태 별 사망자수와 중상자수의 관계도 시각화하여 분석해보았다. 보라색이 중상자 수, 빨간색이 사망자 수이다. 먼저 기상상태별 사망자수, 중상자수를 보았을 때 '맑음'일 때를 제외하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나 도로종류별 사망자 수, 중상자 수를 보았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도로종류가 '특별광역시도'일 때 사망자 수 18,303으로 가장 높고, '시도'일 때 사망자 수 16,424로 가장 높았다. 이 외에 고속국도, 군도, 일반국도, 지방도 등 다양한 도로종류일 때도 사망자수와 중상자 수의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

결론적으로 기상상태보다 도로종류가 교통사고 현황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. 그 중 '시도'와 '특별광역시도'일 때 사고건 수와 사망자, 중상자 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교통량이 높으면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해당 지역의

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 교통 인프라, 도로의 너비, 주행 속도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,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눈이나 비 등 특별한 기상상태일 때보다 '맑음'일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과로 보아 운전자들이 기상이 맑을 때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거나, 높은 속도로 운전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. 다른 기상상태와 다를 바 없이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